제품사고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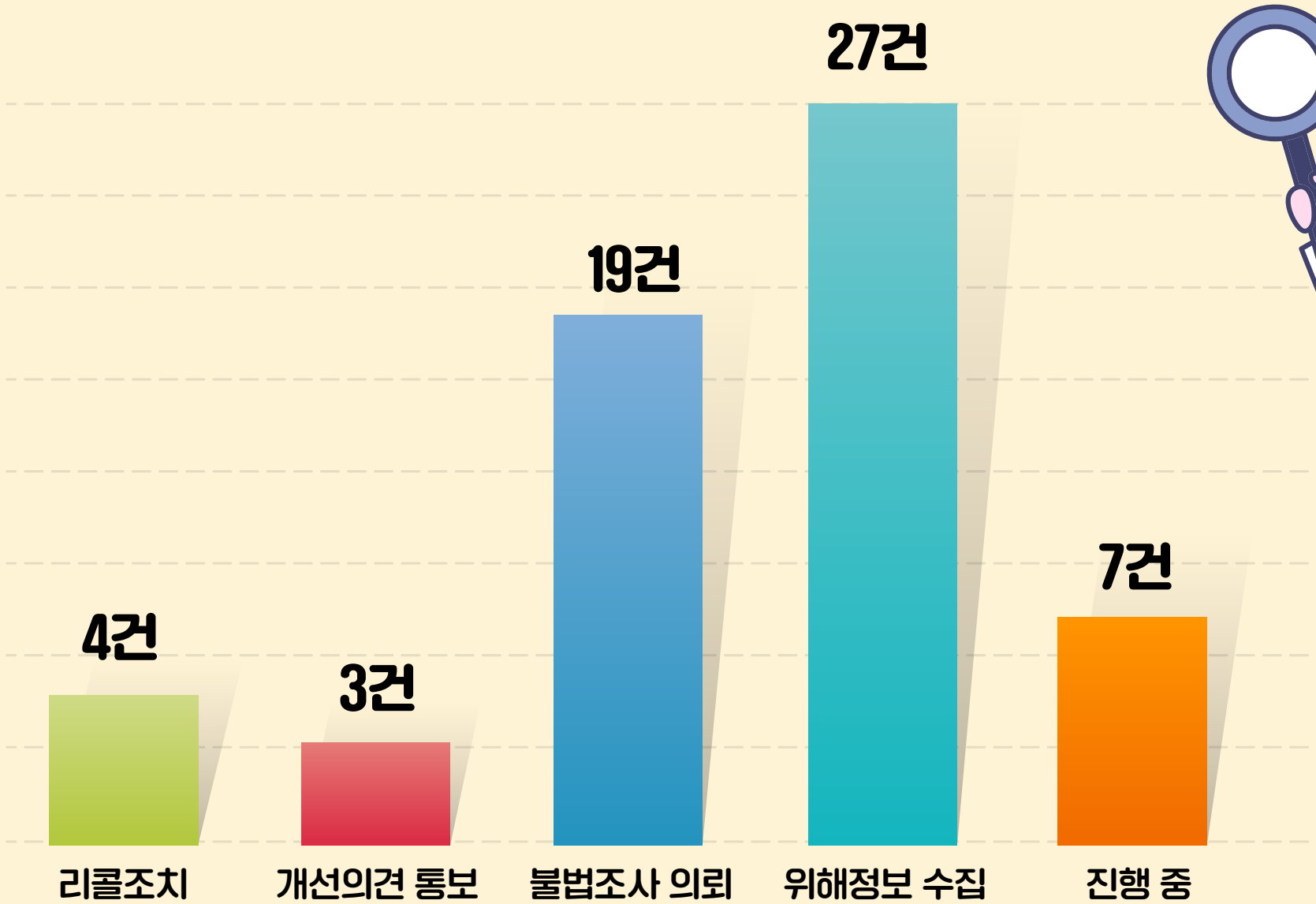
2021 제품사고 이야기

Why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은 2021년 사고 접수된
60건의 제품사고를 조사해

리콜조치, 개선의견 통보, 불법조사 의뢰 등을 조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그중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31건의 사고사례 등을 담아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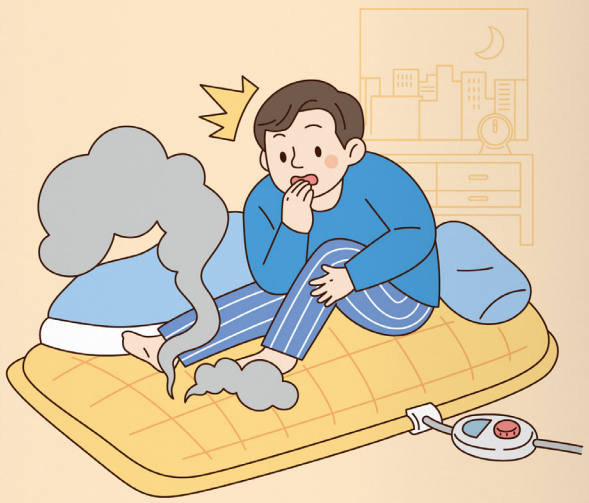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요에 화재가 발생해 불법조사 의뢰된 사례.

제품	전기요
유형	화재 및 화상
접수	제품안전정보센터

제품	전기요
유형	화재 및 화상
접수	제품안전정보센터

데우라고 했더니 태워버린 **전기요**



사고의 재구성

밤 12시가 넘은 시각, 이종민(가명) 씨는 전기요를 켜고 자리에 누웠다. 피곤해서인지 금방이라도 잠에 빠져들 것 같았다. 하지만 훈훈한 온기 속에서 잠에 들려는 찰나, 코끝을 찌르는 이상한 냄새를 감지했다. '뭔가가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이불을 들춰보니 침대 위에 깔아둔 전기요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기 전에 불을 껐지만, 두려운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만약 내가 자고 있었더라면…'

제품사고조사 진행

이 씨는 비싼 돈을 주고 주문 제작한 제품에 문제가 생기자 더욱 화가 났다. 하지만 함정은 바로 그 지점에 있었다. 소비자가 주문한 사이즈에 맞춰 기성제품을 단순 확장한 제품이었던 것이다. ***사이즈는 물론 일부 부품도 최초 인증시험 당시와는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로 변경된 부분은 온도조절기의 부품과 PCB(인쇄회로기판) 패턴으로, 전기요의 핵심 부품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전기요, 전기매트 등 난방용품의 사용이 늘면서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사용자가 주의해서 모든 위험이 방지된다면 좋겠지만, 애초에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내용을 지키지 않은 불법제품이라면 사고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해당 제품은 주요 부품이 임의로 변경된 불법제품으로 밝혀져 행정조치를 취했다.*** 모든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날까지 불법제품과의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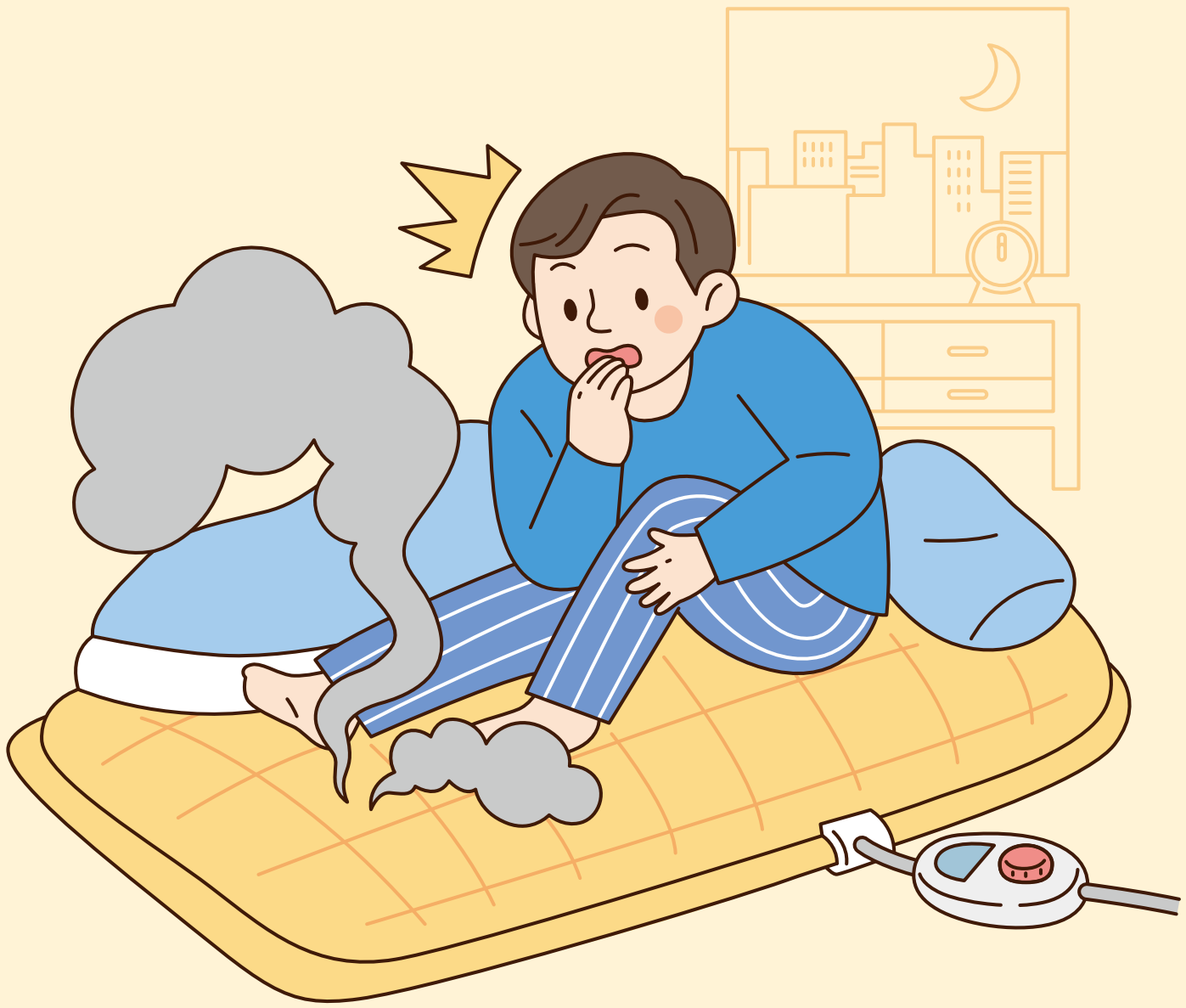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 전선 피복 등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수시 체크
- ▶ 접히거나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사용하고, 사용 후 반드시 전원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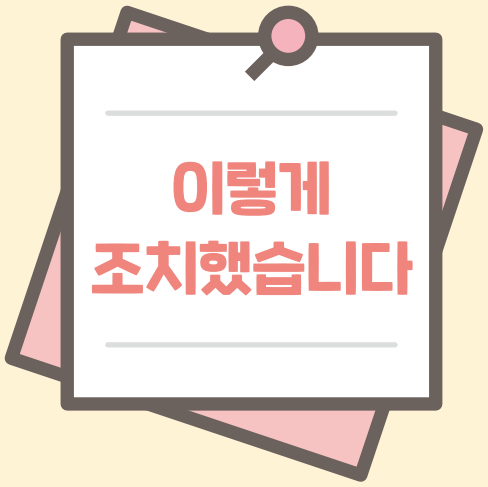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고의
재구성

훈훈한 온기 속에 꿀잠을 자려던 찰나 밑에 깔린 전기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요 부품이 임의로 변경된 불법제품으로 판명됐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행정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 전기요 위에 이불을 덮어놓은 상태로 오래 방치하지 말 것
- ▶ 사용 후 전원코드를 콘센트에서 제거하고, 내부 전선이 꼬이지 않도록 보관할 것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은 사례집을 통해

사고재발 방지와 소비자안전 의식을 강화 하는게 목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더 많은 사고사례가 궁금하다면,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